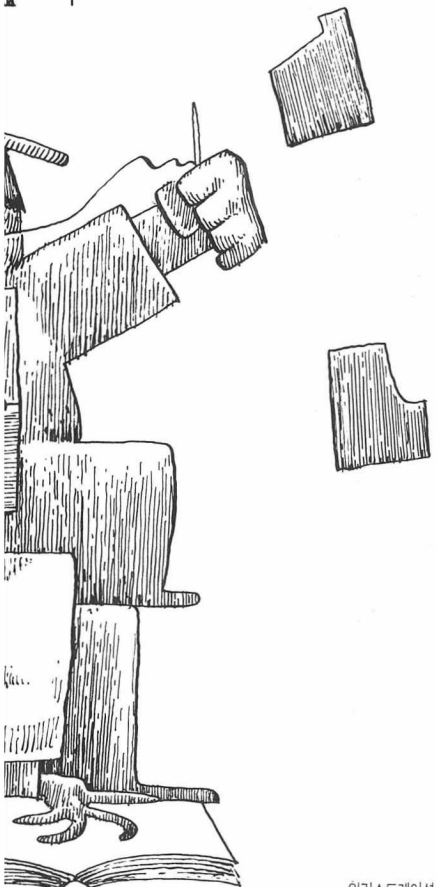


번역가의 이중생활

번역의 전문화 위해 대학·출판사가 제도적 장치 마련해야

이재룡

숭실대 교수·불문학



일러스트레이션 / 윤주영

번역가는 없다. 편집자로부터 번역가로서 평소 느낀 점을 써달라는 주문을 받고 대뜸 떠오른 문구가 이것이었다. 조금도 독창적이지 못하고 선정적이란 비난을 받아 마땅한 이런 문구가 떠오른 이유가 무엇일까. 딱히 우리네 사정만은 아니겠지만 번역을 한 사람이 평생할 수 있는 주된 작업이라고 여기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번역서 한 귀퉁이에 소개된 역자의 소개를 보아도 대개 다른 직함을 먼저 올리는 경우가 많고, 그러다보니 소위 번역가란 단일 명칭은 딱히 적당한 다른 직함이 없어서 마지못해 취한다는 느낌을 받게 된다.

전문화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

물론 이는 실제 번역을 주업으로 삼아 신념을 갖고 매달리는 분을 폄하하는 뜻에서 하는 말은 결코 아니다. 그런 분들은 많지 않은 듯하고 보다 솔직하고 구체적 근거를 들자면 적지 않은 번역서가 쏟아져 나오고 있으나, 국제청에서 번역수입을 주된 징세 대상으로 삼는 번역가가 얼마나 될지 의문이다. 그래서 오로지 번역에 전력을 기하는

필자를 따로 구별하기 위해 전문 번역가라는 직업명칭도 생겨난 듯한데, 굳이 전문이란 접두사를 쓰는 것은 대개의 경우 번역가는 비전문인, 아마추어라는 현실을 반증하는 것은 아닐까.

그렇다면 이는 서가에서 적지 않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번역서는 번역을 주업으로 삼지 않는 사람들이 자투리 시간을 내어 여기삼아 해내고 있다는 뜻일 것이다. 그러나 번역이란 작업을 비전문인이 틈틈이 짬을 내어 하는 여기, 다시 말해 한 전문인의 이중 생활의 산물로 취급한다면 번역의 전문화를 기대할 수 없다.

번역의 전문화가 부진한 이유는 우선 우리 현실에서 번역가는 번역에 필요한 전문적 소양을 쌓을 기회가 없었다는 데 기인한다. 그리고 거기에는 한 사회의 전문가 양성에 일익을 담당하는 대학에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외국어·외국문학을 가르치는 인문대학에서 번역을 커리큘럼에 포함시켰다는 소문은 들어본 적이 없다. 대학은 백화점처럼 다양하고 화려한 명칭을 지닌 개설과목을 자랑하고 정작 강의내용은 원서를 해석, 전달하는 수준에 머물면서도 번역학은 상아탑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고고한 자세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사정이 많이 개선되었지만 학문의 기본이 되는 전문서의 번역이 아직도 만족스런 수준에 이르지 못했고 정작 번역서가 있어도 국내 논문에서는 외면당하고 원서를 각자가 인용, 번역하는 것이 관행이다.

교육부가 학자를 평가하는 기준에 따르면 너절한 짜깁기식 논문은 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100점을 주지만 학문의 기본서를 꼼꼼하게 십년 동안의 노고 끝에 내놓아도 그에 상응하는 평가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더구나 문학을 전공한 교수가 문학작품을 번역하면 0점처리하게 되어 있다.

대학에 일차적 책임

창의성을 존중한다는 취지를 심본 받아들이나 해도 이런 상황에서는 기본서의 믿을 만한 번역서나 아름다운 문학작품의 향기가 배어 있는 번역서가 나오지 않는 것이 당연

번역의 전문화가 부진한 이유는 우선 우리 현실에서 번역에 필요한 전문적인 소양을 쌓을 기회가 없었다는 데 기인한다. 외국문학을 가르치는 대학의 커리큘럼에 '번역'이 포함돼 있지 않다. 연구와 강의가 본업인 교수가 번역하는 것을 이중생활이라 한다면 번역을 떠맡을 대체인력 양성만이라도 대학에서 신경써야 한다.

할 수밖에 없다. 연구와 강의가 본업인 교수가 번역을 한다는 것이 이중생활이라고 한다면 번역을 떠맡을 대체 인력의 양성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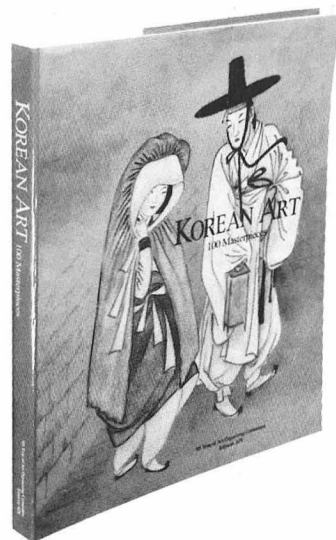
이라도 대학에서 신경을 써야 한다.

예컨대 상업성은 없지만 학문적 가치가 뛰어난 작품을 대학원 과정에서 지도교수의 감수 아래 번역케 하여 학위논문으로 대체 시킨다면 전문 번역가도 양성하고 학문의 발전에 밑거름이 되는 수확을 기대할 수 있다. 이런 제도는 외국대학에서도 이미 실시하여 효과를 거두고 있다.

대학이 쓸모없는 지식만 가르치니 대졸 신입사원의 재교육에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고 기업체가 불평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번역 사업의 기업체격인 출판사도 유사한 상황에 처해 있다. 번역가에게 일정한 전문적 안목을 기를 때까지 기회를 주고 시행착오가 따르는 경험을 쌓게 해주는 투자는 어쩔 수 없이 출판사가 떠맡아야 한다. ❖

화제의 출간

한국의 전통미술을 세계에 알린다 《Korean Art 100 Masterpieces》 발간



'94년 '미술의 해'를 맞아 미술의 해 조직위원회가 펴낸 《한국미술-명품100선》의 영문판이 나왔다. 이대원(예술원 회장) 안휘준(서울대 고고미술사학과 교수) 김리나

(홍익대 미술사학과 교수) 백승길(한국 ICOM 자문위원) 등의 편집자문위원회를 중심으로 한국 5천년 미술사를 빛내는 작품 중 뛰어난 조형미를 지닌 100점을 엄선, 도판과 함께 상세한 설명을 실었다.

100점의 수록명품 중에는 삼국-남북조시대 고구려벽화, 천마총, 기마인물형 토기, 고려시대 청자와 무량수전, 수덕사 대웅전, 조선시대 안건의 몽유도원도, 혜원의 미인도 그밖에 창덕궁 인정전, 담양의 소재원 등이 담겨 있다.

최첨단 컴퓨터 그래픽 시스템으로 제작, 국제 수준의 미술도서로서 한국 미술의 아름다움을 세계에 알리는 데 손색 없는 질을 갖추고 있다. 이 책의 실무 제작을 맡은 (주)에이피인터내셔널은 영어판 발간에 이어 일어, 불어판도 출간할 예정이다.